

# 베스트셀러가 '냄비'라면 스테디셀러는 '뚝배기'

## 교보문고 '2008~2012년 스테디셀러' 집계

베스트셀러가 '냄비'라면 스테디셀러는 '뚝배기'다. 전자가 어느 한 순간 확 달아올랐다 사라지는 특징이 있다면 후자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열기를 지속한다. 최근 불황이 깊어지는 가운데 출판계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파문으로 혼란을 치른 바 있다. 설령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해도, 그 책이 수년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가 되기는 어렵다. 스테디셀러는 독자들의 감성에 부합하는 스토리, 시대적 상황, 치열한 상상력이 결합해야 가능하다. 여기에는 당장의 실적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작품을 써낸 작가가 독자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렇다면 스테디셀러는 어떤 책일까? 교보

문고가 9일 발표한 '2008~2012년 스테디셀러' 자료에 따르면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한국 소설), 권정생의 '강아지똥'(유아),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아동), 도종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시) 등이 각각 선정됐다. 교보문고는 한국 소설, 외국 소설, 시, 유아, 아동, 인문과학 등 분야별로 5년 간 판매 순위 20위권에 든 작품을 집계했다.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가부장적 삶속에서 회생을 갈망했던 엄마의 삶을 돌아보는 작품이다. 신은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기에 엄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듯이 소설은 현재의 우리는 전적으로 엄마라는 천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작가 특유의 유려한 문체로 이야기한다.

-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 권정생 '강아지똥'
- 황선미 '마당을 나온 암탉'
- 미카엘 엔데 '마법의 설장...'
- 박완서 단편동화 '자전거 도둑'
- 류시화 '사랑하라 한번도...'
- 김혜남 '서른살이 심리학...'
- 빌 브라이슨 '거의 모든 것의...'
- 정재승 '과학 콘서트'

'엄마를 부탁해'는 국내 소설 중 유일하게 5년 동안 20위권을 지켰으며 외국 소설로는 기욤 뫼리의 '구해줘', 알랭 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가 선정됐다. 유아부문으로 뽑힌 '강아지똥'은 1969년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수상했던 고(故) 권정생 선생의 대표작이다. 강아지가 골목에 누고 간 똥은 더럽다고 천대를 받지만, 그곳에서 파란 민들레가 싹을 틔웠다는 내용으로 자연과 생명, 소외된 것들에 대한 애정이 투영된 작품이다. '강아지똥'은 지금까지 1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뮤지컬로도 제작된 만큼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이 외에도 백희나의 '구름빵', 앤서니 브라운의 '왜지책' 등 5년 동안 인기를 얻었다. 아동 분야는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 꾸준한 인기를 얻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암탉의 성장 과정을 통해 현실의 냉엄함

과, 생태계에 존재하는 불변의 법칙을 잔잔한 감동으로 그렸다. 이 밖에 미카엘 엔데의 '마법의 설장 두 조각', 박완서의 단편동화 모음집 '자전거 도둑' 등 5권이 선정됐다. 시집은 류시화의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한국 대표시인 100명이 추천한 애송시 모음 '어느 가슴엔 들 시가 꽃피지 않으랴'(1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시 100선'도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작품에 뽑혔다. 인문과학과 정치 사회분야에서는 김혜남의 '서른살이 심리학에 묻다', 장지글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등 한권씩이 포함됐다. 교양 분야에선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등 6권이 스테디셀러에 올랐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실크로드에서 만난 생명의 기운

### 구만채 '감성과 색채'전 11일까지 원광갤러리

서양화가 구만채씨가 오는 11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 원광갤러리에서 '감성과 색채'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구씨는 실크로드를 여행하면서 얻은 영감을 회화적 언어로 풀어냈다. '실크로드 달빛', '실크로드 꽃은 피고', '새벽 꽃은 피고' 등 근작이 그 작품들로, 색채의 향연 속에서 생명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드는 반추상적 화면 구성으로 간결하고 절제된 분위기와 리듬감이 느껴진다. 하얀 캔버스 위에 수채화의 번짐처럼 퍼진 원색 아크릴 물감이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구씨는 전남미술대전 대상(2000년), 광주미술대전 대상(2003년)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꽃과 소녀'

전남도 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문의 062-222-654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여름밤, 클라리넷의 향연

### 주민혁 클라리넷 독주회 11일 금호아트홀

클라리넷은 깊은 음색이 매력적인 악기다. 한편으로 깊은 우물 안을 들여다 보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도 어릴 때 푸른 청공을 나르는 듯한 반전을 안겨주는 악기이기도 하다. 주민혁 클라리넷 독주회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광주예고·경희대 음대를 거쳐 프랑스 무동국립음악원, 오베르빌리에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주씨는 현재 광주 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상임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주 레퍼토리는 사우자의 '칸탈렌', 코바스의 '오마주 아 마누엘 데 파야', 호르비츠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플랑의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악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준현씨가 반주를 맡았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3432-8300 /김미은기자 mekim@

## 440년전 선조들 무등산에서 노닐다

### 광주문화재단, 13~14일 '유서석록' 현대적 해석 재연

440여년 전 무등산 유람에 오른 옛 선조들의 모습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여행'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3~14일 1박2일 동안 '유서석록(遊瀛石錄)'을 현대적 해석으로 재연하는 '무등산에서 노닐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서석록'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석산'으로 불리웠던 무등산을 유람하고 그 기록을 남긴 기행문. 1574년(선조 7년) 제봉 고경명이 당시 74세의 광주 목사 임훈 일행과 함께 무등산에 올랐던 감상을 기술한 책으로, 오늘날 전해오는 무등산 유람기 중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문헌으로 평가된다. 첫날인 13일 증심사에서 선비들의 탁구 장면과 탐사단 출발 모습 재연으로 시작되며 장물제로 이동해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시조 낭송, 국악 연주에 맞춘 시조창, 무등세상을 기원하는 기원무가 펼쳐진다. 14일은 정상 인근에 올라 아름다운 무등산의 일출을 감상하면서 당시 선비들의 모습을 극도로 재연하고, 입석대로 이동해 입석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재연극을 감상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5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지역 최초 초등학교는? 광주·전남 1호 추적

### '문화통&Asia' 여름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예술 잡지 '문화통&Asia' 여름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광주·전남지역 1호'를 추적했다. 지역 최초의 초등학교는 1896년에 세워진 서석초등학교였고, 중등학교는 목포정명여자학교(1903)로 확인됐다. 목포 양동교회, '쓰바메' 다방, 설렁탕집 '유일관' 등도 지역 최초의 교회와 음식점 등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 일가를 그린 서양화 5점도 공개된다. 지난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세 자녀와 함께 진해 별장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당시의 모습을 그린 작

품물이다. 오승우 화백이 그린 이 그림은 광주지역 컬렉터가 10년 전 서울에서 구입·보관 중이다. 또 1950년대 광주에서 발간된 동인지 '영도(零度) 2집도 발굴됐다. 한국문단에 큰 발자취를 남긴 강태열, 박봉우, 주병영, 박성룡 등이 지난 1955년 2월1일 창간했던 영도는 그해 5월 2집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 밖에도 전라도문화수수계, 조용현 칼럼, LP 1만여 장을 갖춘 음악다방 '박태진 뮤직토크'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실었다. 문의 062-226-1000. /김경민기자 kki@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간 약 1만명 시술경력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궁인가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주소: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산프리모 남가발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일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